

Research Paper

국립공원 이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시민 인식

이성훈* · 구경아** · 임창민*** · 윤태경*

상지대학교 산림학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Citizens' Perception on and Attitudes toward Use and Management of National Parks in South Korea

Seonghun Lee* · Kyung Ah Koo** · Changmin Im*** · Tae Kyung Yoon*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Sangji University*

Division for Natural Environmen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Department of Geography, Kore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최근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의 정책 방향을 검토·결정 하는데 필요한 국립공원 이용·보전 관리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국립공원 이용 및 인식과 관련한 설문 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이 수행됐으나 공원 관리의 쟁점 사항 및 이용에 관한 조사 문항 등이 부족하며 조사 대상이 탐방객으로 국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시민들의 국립공원 이용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탐방객을 상대로 진행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은 고지대 탐방보다는 저지대 탐방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국립공원에서는 산정부 탐방 금지 정책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거나 탐방예약제를 소폭 도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탐방예약제를 이용해본 시민들의 비율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탐방객과 일반 시민의 차이점을 고찰하고 공원 관리 원칙과 방향성의 변화, 국민의식과 탐방형태의 변화에 따른 정책여건을 전망하였다.

주요어: 국민인식조사, 탐방예약제, 저지대 방문, 일반시민,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ublic opinion on the use and conservation management of national park, to manage the growing demand of national park visit and to support the policy direction of national park. So far, various surveys and big data analysis on the use and perception of national park have been conducted, but there have been limitations such as lack of survey questions on issues in park management and use. In addition, the object of the previous studies were limited to the national park visitors; therefore, this study expanded the object of survey from national park

First Author: Seonghun Lee, E-mail: dbajds00@naver.com, ORCID: 0000-0003-0562-494X

Corresponding Authors: Tae Kyung Yoon, Tel: +82-033-730-0525, E-mail: tkyoon@sangji.ac.kr, ORCID: 0000-0003-0627-0135

Kyung Ah Koo, Tel: +82-044-415-7202, E-mail: kakoo@kei.re.kr, ORCID: 0000-0001-7139-5757

Co-Author: Changmin Im, E-mail: window0611@gmail.com, ORCID: 0000-0002-5254-0995

Received: 15 January, 2021. Revised: 2 March, 2021. Accepted: 3 March, 2021.

visitors to ordinary citizens. Unlike previous studies conducted only on national park visitors, ordinary citizens relatively preferred bottom areas rather than high-altitude ones. A policy to limit the visit to high-ridge area of mountain is being currently driven; however, the survey results of ordinary citizens suggested to maintain current policies or to increase visitor reservations system within narrow limits.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citizens who have used the visitor-reservation system was very small. We discuss the difference between national park visitors and ordinary citizens and the policy conditions according to changes in park management principles and public attitudes toward national parks.

Keywords: Public survey, Visitor-reservation system, Bottom-area visit, Ordinary citizen, National park feasibility study

I. 서론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 우리나라에는 현재 2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 국토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공원에는 국내 기록 생물종의 45%가, 국내 멸종위기종만으로는 65%가 서식·분포하고 있다. 또한, 명승지와 사찰 등 국보 41건과 지정문화재 733건도 국립공원에 소재해있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20). 국립공원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보고서(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18)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수산물과 담수를 공급하는 공급서비스와 대기질, 온실가스, 자연채해, 침식을 조절하는 조절서비스, 여가·휴양, 건강·치유, 경관을 제공하는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시민들의 여가 생활과 건강 관리를 하는 곳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로 각광받아왔고 국립공원 탐방은 일반적인 휴양문화로 정착되어왔다(Lee 2010). 특히, 2006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국립공원은 시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연간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008년 약 3,800만 명에서 2019년 약 4,300만 명으로 증가할 정도로 많은 탐방객의 발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20). 그러나 이러한 국립공원 탐방객 수의 증가는 생태계 파괴, 탐방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그리고 시설 및 서비스 질의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탐방객들에게 긍정적인 탐방 경험을 제공하고 탐방객들의 이용에 의한 생태계 훼손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탐방객 관리가 필수적이다(Lee 2010).

이에 국립공원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실현하기 위해 그린포인트 제도나 탐방예약제 등이 국립공원에 도입되고 있다. 또한 2017년 <국립공원 미래비전 3050>은 3대 핵심가치로 자연(한반도 전체의 생태가치를 높이는 국립공원), 사람(내 삶을 바꾸는 국립공원), 미래(우리의 미래를 여는 국립공원)를 도출하고 이를 향후 국립공원 운영 방향성으로 제시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7b). 2020년 6월에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제2조의2)으로 현재·미래세대를 위한 보전, 생태적 관리,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 지역사회 협력, 국제협력 등이 새롭게 명시되었다.

그동안 국립공원공단과 국립공원연구원은 국립공원 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공원 인지도 조사>와 <국립공원 탐방객 여가·휴양 실태조사>(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17)를 실시해왔다. 또한 국립공원연구원은 기존 조사·집계 중심의 탐방객 현황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탐방 수요를 예측하고 탐방객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18). 학계에서도 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의 탐방로(Yoo & Kwon 2004), 시설물(Yang et al, 2014), 계절별 탐방 프로그램 현황

(Seo et al. 2016)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탐방예약제 시행 이후 탐방예약제에 대한 탐방객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탐방예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일부 있었다(Lee et al. 2003; Yoon 2016). 이러한 연구들은 국립공원 이용 현황과 탐방객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국립공원에 방문한 탐방객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국립공원은 탐방객 일부가 아닌 국민 전체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 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 방향과 정책·제도는 국립공원을 찾지 않는 시민들을 포함한 미래의 잠재수요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시민들까지 포함하는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8년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수립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국립공원 이용과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정책여건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일반 시민 800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탐방객 중심의 국립공원 이용 및 인식 실태와 우리나라 전체 시민의 이용 및 인식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의 이용 및 보전 관리에 대한 방향과 시민들의 국립공원 수혜를 확대하기 위

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방법

1. 설문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제주 제외)¹⁾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9세 미만 성인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800명의 인원을 다단계 층화추출 방법으로 표본 추출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표본오차는 3.5%로 신뢰수준 95%이다. 표본 할당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2018년 8월 기준)를 이용하여 인구학적 특성변수(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을 실시하였다. 해당 지역에서 일대일 개별면접조사로 진행하였고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서 2018년 11월 1일부터 30일 동안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문항은 국립공원 이용실태, 국립공원 관리 방향, 환경의식, 응답자 특성으로 구분되어 Table 2와 같이 구성하였다. 국립공원 이용에 관한 문항은 국립공원연구원의 <국립공원 탐방객 여가·휴양 실태조사>

1) 표본 800명 수준의 전국 단위 개별면접조사에서 제주의 표본 할당량은 10명 내외로, 작은 표본으로 인한 신뢰성과 비용의 문제로 조사대상에서 제주는 제외하였다.

Table 1. Responden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Proportion (%)	Classification		Proportion (%)
Sex	Female	49.3	Household	< 1	1.1
	Male	50.8		1~2	4.3
Age class	20s	19.6		2~3	15.4
	30s	19.4		3~4	25.6
	40s	22.6		4~5	22.1
	50s	22.8		5~6	17.8
	60s	15.6		6~7	7.5
				7~8	3.0
Residential area	Seoul	20.0		8~9	1.4
	Incheon/Gyeonggi	31.4		9~10	0.9
	Gangwon	2.9		> 10	1.0
	Daejeon/Sejong/Chungcheong	10.8			
	Gwangju/Jeolla	9.6			

Table 1. Continued

Classification		Proportion (%)	Occupation	Classification	Proportion (%)
Residential area	Daegu/Gyeongbuk	9.9		Occupation	Agriculture, fishery, livestock
	Busan/Ulsan/Gyeongnam	15.5	Self-employment		22.8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below	6.3	Sales and service		18.3
	High school	43.1	Functional, skilled worker		5.4
	Undergraduate	49.5	General working position		3.9
	Graduate	1.1	Office and technical work		24.8
Marital status	Single	27.1	Management		0.6
	Married marriage	71.1	Professional, liberal employment		0.9
	Other	1.8	Housewife		13.9
Health status	Good	72.5	Student		5.3
	Ordinary	23.6	Unemployed	2.5	
	Bad	3.9			

Table 2. Survey items

Category	Question	Response variable
National park use	Past experience in national park use	Categorical (①use within a recent year, ②use in past, not within a recent year ③none in lifetime)
	Number of national park visit in a recent year	Numeric
	Purpose of national park visit	Categorical, multiple response (①appreciation of buddhist temples and cultural assets, ②hiking or walking, ③mountain climbing, ④participation in natural/cultural interpretation programs, ⑤ beach bathing, ⑥socializing with people, ⑦appreciation of natural objects ⑧scenery watching on cable cars or tourist attractions, ⑨camping, ⑩other)
	Reason for not visiting national parks	Categorical, Multiple response (①difficulty in moving due to health problems, ②lack of nearby national parks, ③inconvenience in movement, ④lack of extra time, ⑤lack of interest in visiting national parks, ⑥preference for other leisure activities, ⑦busy for family care, ⑧no reason, ⑨other)
	Number of mountain climbing in a year	Categorical (①daily, ②more than twice a month, ③once a month, ④5-6 times a year, ⑤3-4 times a year, ⑥one to two times a year, ⑦none)
	Number of hiking or forest walking in a year	Categorical (①daily, ②more than twice a month, ③once a month, ④5-6 times a year, ⑤3-4 times a year, ⑥one to two times a year, ⑦none)
Attitudes toward national park management	Evaluation of conservation status in national parks	5-point Likert scale (①very damaged ↔ ⑤very preserved)
	Degree of importance of national parks to oneself	5-point Likert scale (①not important at all ↔ ⑤very important)
	Opinion to basic principles for national park management	4-point Likert scale (①use, development-oriented ↔ ④preservation-oriented)
	Opinion to appropriate management for high ridges and top of mountain	Categorical (①visit prohibition, ②visit limit, ③maintaining current policy ④visit expansion with reduced regulation)

Table 2. Continued

Category	Question	Response variable
Attitudes toward national park management	Opinion to necessary of facilities such as wood decks, staircases, and safety ropes	5-point Likert scale (①strongly disagree ↔⑤strongly agree)
	Opinion to expansion of national park areas	5-point Likert scale (①strongly disagree ↔⑤strongly agree)
	Opinion to endangered speceis restoration	5-point Likert scale (①strongly disagree ↔⑤strongly agree)
	Acceptability of visit restriction for sustainable national park management	5-point Likert scale (①strongly disagree ↔⑤strongly agree)
Respondent characteristics	Sex	Categorical (①female, ②male)
	Age	Ordinal (①20s, ②30s, ③40s, ④50s, ⑤60s)
	Residnetial area	Categorical (①Seoul, ②Busan, ③Daegu, ④Incheon, ⑤Gwangju, ⑥Daejeon, ⑦Ulsan, ⑧Gyeonggi, ⑨Gangwon, ⑩Chungbuk, ⑪Chungnam, ⑫Sejong, ⑬Jeonbuk, ⑭Jeonnam, ⑮Gyeongbuk, ⑯Gyeongnam)
	Education	Ordinal (①middle school, ②high school, ③undergraduate, ④graduate)
	Occupation	Categorical (①agriculture, fishery, livestock, ②self-employment, ③sales and service, ④functional, skilled worker, ⑤general working position, ⑥office and technical work, ⑦management, ⑧professional, liberal employment, ⑨housewife, ⑩student, ⑪unemployed, ⑫other)
	Marital status	Categorical (①unmarried, ②married, ③other)
	Household income	Ordinal (①< 1 million won, ②1~2 million won, ③2~3 million won, ④3~4 million won, ⑤4~5 million won, ⑥5~6 million won, ⑦7~8 million won, ⑧8~9 million won, ⑨9~10 million won, ⑩> 10 million won)
	Health status	Five-point Likert scale (①very bad↔⑤very good)

Questions for environmental awareness such as satisfaction with the environemntal status in Korea, number of recognizable environmental terms in a list, interest in the environment and environmnetal problems, practice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the past month, new environmental paradigm scale and satisfaction with life, which were included in the original questionnaire, is not presented here.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18) 및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국립공원 인식에 관한 문항은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미래포럼〉(Ministry of Environment 2017a)의 주요 쟁점 사항들을 참고로 제작하였다. 환경의식에 따른 국립공원 이용 및 관리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Ahn et al. (2017)의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고, 설문비교 대상에 서는 제외하였다. 설문문항 중 응답자 특성은 성, 연령,

거주지역, 혼인, 교육, 건강상태, 가구소득, 직업 등으로 하였다.

2. 분석방법

설문조사 응답 자료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 통계적 차이($p < 0.05$)를 확인하였다. 국립공원 이용실태, 국립공원 관리 방향, 환경의식, 응답자의 특

성으로 일반 시민들의 국립공원 인식을 파악하고 기존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과 비교·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는 R프로그램(R Core Team 2020)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단위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III. 결과 및 고찰

1. 결과

1) 국립공원 방문·이용 실태

조사결과 시민의 대다수(88.4%)는 국립공원 방문 경험이 있으며 약 10명 중 한명(11.6%)만이 과거에 국립공원 방문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Figure 1). 국립공원 방문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 중 절반(44.1%)은 최근 1년 이내에 방문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절반(44.3%)은 최근 1년은 아니나 과거에 방문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비교하였을 때는 남성이 여성보다 국립공원 방문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최근 1년 이내 방문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 응답자의 비율은 49.0%로 39.1%인 여성 응답자의 비율에 비해 약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Figure 1). 반대로 국립공원 방문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여성 13.7%, 남성 9.6%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국립공원 방문경험을 비교했을 때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 응답자의 방문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립공원 방문경험이 없는 20대의 비율은 19.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았다. 30대의 과거 국립공원 방문경험은 40~60대와 차이가 없으나 최근 1년 이내에 방문했다고 응답한 30대의 비율(40.6%)은 40~60대(50.4~53.3%)에 비해 10%p 정도 낮게 나타났다.

최근 1년간 각 국립공원별 방문 횟수를 질문하고 이를 합산하여 전체 국립공원 총 방문 횟수를 환산하였는데 응답자 전체 평균 연간 1.51회 국립공원을 방문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비교 시 남성이 2.01회, 여성이 1.00회로 남성이 여성보다 방문횟수가 2배 높았다. 연령별로 비교 시에는 20대 0.55회, 30대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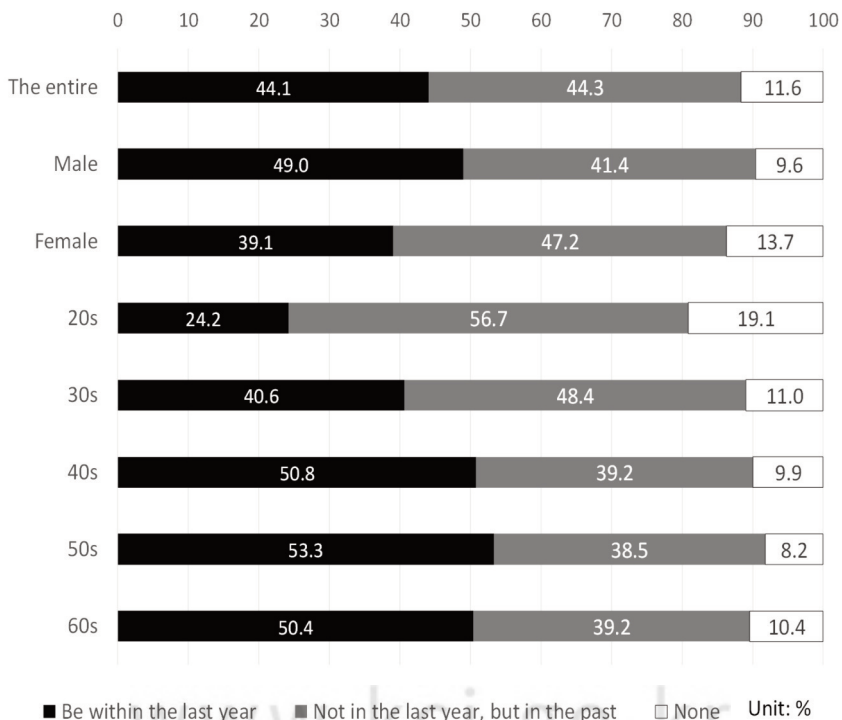


Figure 1. Frequency of visits to national parks by age.

회, 40대 1.61회, 50대 2.25회, 60대 1.97회로 20대 부터 50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방문횟수가 증가하며 이후 60대에 소폭 감소하였다. 단 여성의 경우에 60대 여성은 1.39회로 50대 여성 1.35회보다 미세하게 높았다(Figure 2).

국립공원 시설·프로그램 이용 경험에 대해서 국립공원 내 야영장, 대피소, 탐방예약제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였다. 야영장, 대피소, 탐방예약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2.7%, 17.0%, 16.2%이다. 최근 1년 이내에 야영장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4.8%이며 최근 1년은 아니나 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7.9%로 나

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대피소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6%이며 최근 1년은 아니나 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5.4%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탐방예약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3%이며 최근 1년은 아니나 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3.9%로 나타났다(Figure 3).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국립공원 방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0대의 경우 야영장과 탐방예약제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타 연령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대피소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타 연령대보다 낮았다. 30대의 경우 최근 1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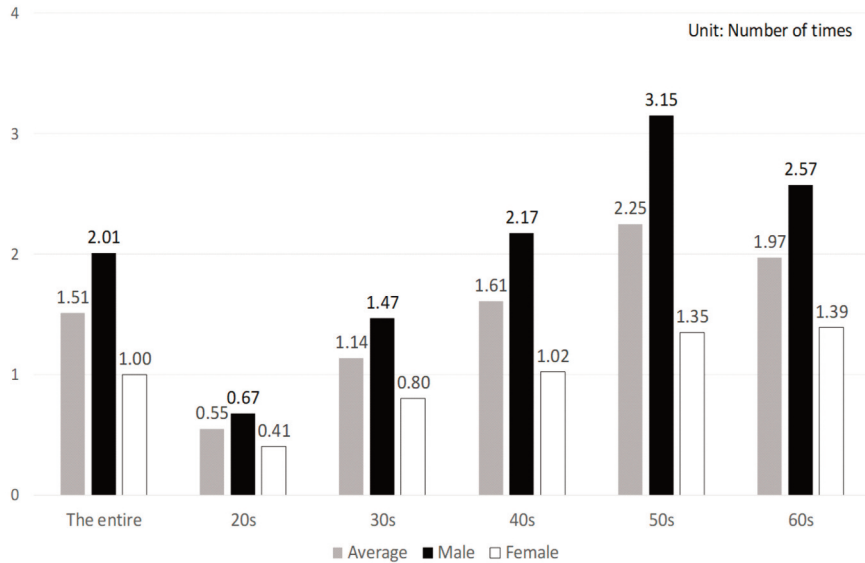


Figure 2. Number of visits to national parks by sex and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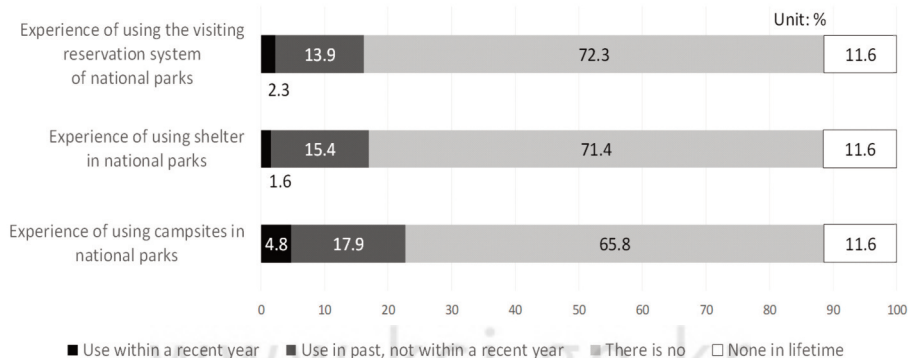


Figure 3. Experience using national park facilities and programs.

내에 아영장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7%로 타 연령대보다 높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40대와 60대는 전체 연령대의 중간 정도의 응답을 보였다. 50대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탐방예약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연령별 비교에서 가장 높았다.

국립공원 방문 경험이 있는 707명의 응답자에게 국립공원 방문 목적을 질문하였을 때 1순위 기준 “공원 내 자연물 감상” 25.6%, “가벼운 등산(산책)” 24.9%, “산 정상 등반” 18.8%, “사찰 및 문화재 감상” 16.1%, “함께 온 사람들과 친목 활동” 6.8%, “케이블카·유람선 이용” 3.7%, “자연/문화 해설 프로그램 참여” 2.4%, “해수욕” 0.8%, “캠핑” 0.7% 순으로 응답되었다. 중복응답(1+2+3순위) 기준의 결과도 1순위 응답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산 정상 등반”(34.1%)과 “사찰 및 문화재 감상”(52.9%)의 순위가 역전되어 나타났다(Figure 4).

국립공원 방문 목적에 대한 응답을 성별과 연령별로 비교하였을 때 성별 및 연령별 차이가 뚜렷했던 항목은 “산 정상 등반”이었다. 남성 및 장·노년 응답자 일수록 응답 비율이 높았고 여성 및 청년 응답자일수록

응답 비율은 낮았다. 예를 들어 “산 정상 등반”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은 60대 남성 35.7%, 50대 남성 25.6%인 반면에 20대 여성은 6.9%, 30대 여성은 3.1%로 대비되었다. 그 외에 20대 남성과 여성의 “사찰 및 문화재 감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20대 여성의 “자연/문화해설 프로그램 참여”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 남성과 여성의 “가벼운 등산(산책)”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장·노년 남성의 경우 “산 정상 등반”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과 달리 장·노년 여성의 경우 “사찰 및 문화재 감상” 혹은 “함께 온 사람들과 친목 활동”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Table 3).

1년 이내에 국립공원에 방문 경험이 없는 447명의 응답자에게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더니 대다수의 응답자가 “바쁘거나 여가시간 부족”을 선택하였다. 1순위 기준으로 “바쁘거나 여가시간 부족” 60.9%, “그냥/특별한 이유 없음” 9.4%, “가까운 곳에 국립공원이 없거나 국립공원까지 이동이 어려움” 8.9%, “다른 형태의 여가활동 우선” 8.3%, “국립공원 방문에 관심·흥미 없음” 6.0%, “건강·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움” 3.6%, “임신·출산·양육·가족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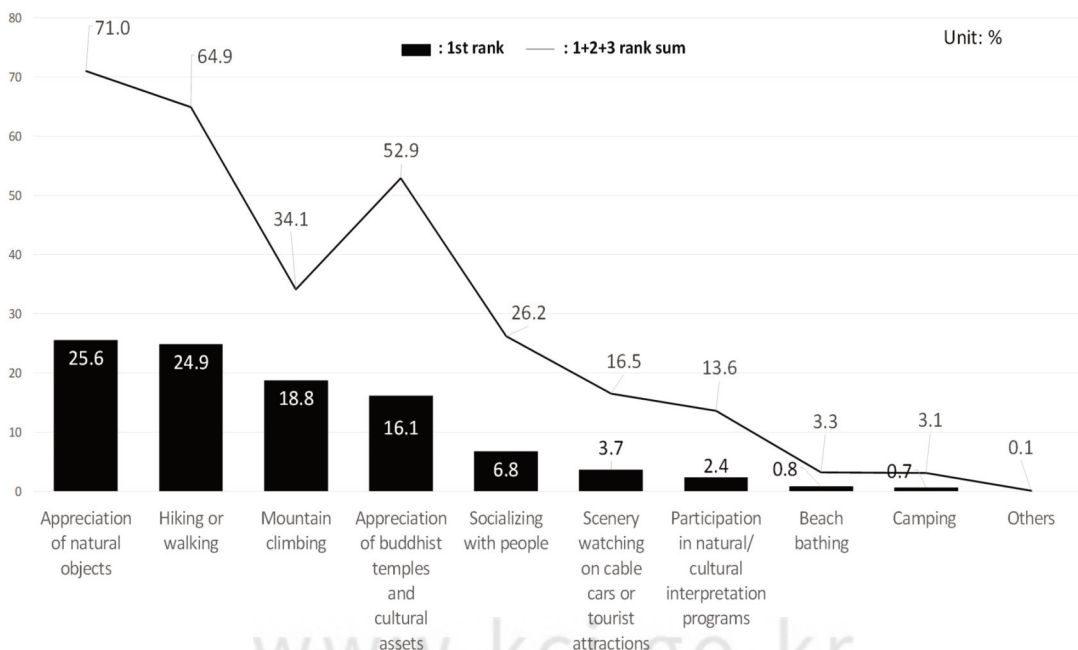


Figure 4. Purpose of visit to national park

Table 3. Purpose of visit to national parks by sex and age (Unit: %)

	Appreciation of natural objects	Hiking or walking	Mountain climbing	Appreciation of buddhist temples and cultural assets	Socializing with people	Scenery watching on cable cars or tourist attractions	Participation in natural/cultural in interpretation programs	Beach bathing	Camping	Others
20s male	24.6	27.5	15.9	11.6	8.7	7.2	4.3	0.0	0.0	0.0
30s male	28.4	23.0	21.6	13.5	2.7	2.7	4.1	2.7	1.4	0.0
40s male	15.9	22.0	22.0	24.4	7.3	2.4	2.4	2.4	1.2	0.0
50s male	23.3	23.3	25.6	12.8	9.3	2.3	0.0	1.2	1.2	1.2
60s male	19.6	14.3	35.7	17.9	8.9	1.8	1.8	0.0	0.0	0.0
20s female	27.6	36.2	6.9	13.8	5.2	6.9	1.7	1.7	0.0	0.0
30s female	35.9	31.3	3.1	10.9	4.7	4.7	6.3	0.0	3.1	0.0
40s female	30.9	27.2	16.0	17.3	4.9	3.7	0.0	0.0	0.0	0.0
50s female	21.0	24.7	19.8	21.0	7.4	3.7	2.5	0.0	0.0	0.0
60s female	32.1	19.6	19.6	16.1	8.9	1.8	1.8	0.0	0.0	0.0

Table 4. Purpose of non-visit to national parks by sex and age (Unit: %)

	Lack of extra time	No reason	Lack of nearby national parks	Preference for other leisure activities	Lack of interest in visiting national parks	Difficulty in moving due to health problems	Busy for family care	Others
20s male	57.6	10.2	6.8	10.2	13.6	1.7	0.0	0.0
30s male	72.7	9.1	9.1	4.5	0.0	2.3	2.3	0.0
40s male	59.0	10.3	15.4	7.7	5.1	2.6	0.0	0.0
50s male	69.0	4.8	9.5	7.1	7.1	0.0	0.0	2.4
60s male	60.9	4.3	8.7	4.3	4.3	13.0	0.0	4.3
20s female	61.7	11.7	11.7	8.3	3.3	1.7	1.7	0.0
30s female	43.8	18.8	6.3	12.5	8.3	0.0	10.4	0.0
40s female	68.0	8.0	6.0	4.0	8.0	0.0	6.0	0.0
50s female	67.4	2.3	14.0	2.3	7.0	4.7	0.0	2.3
60s female	48.7	10.3	2.6	20.5	0.0	17.9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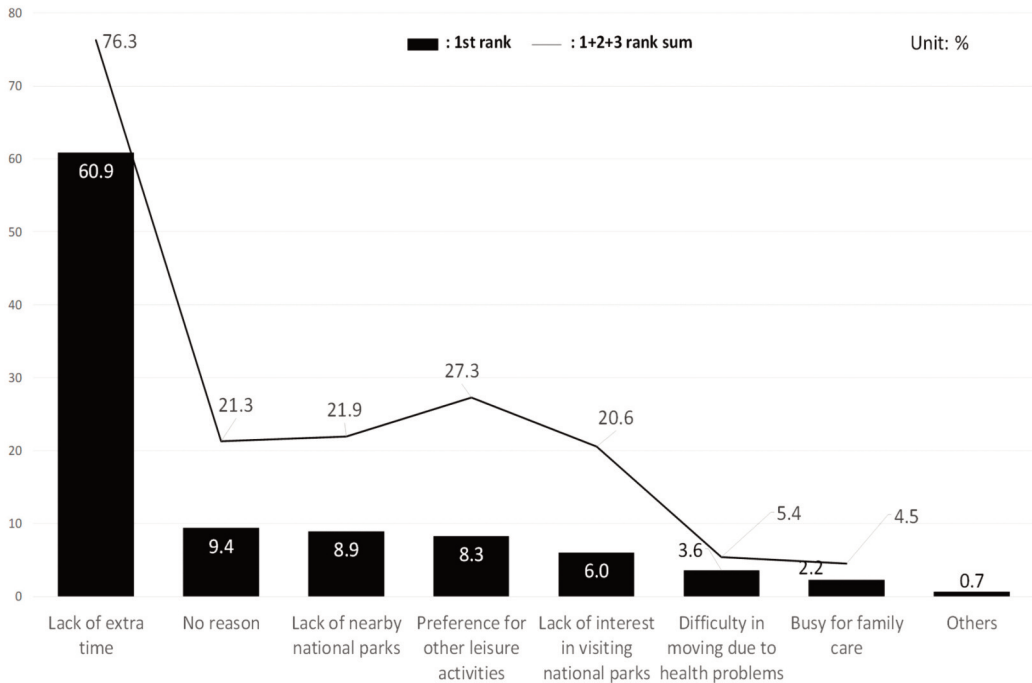


Figure 5. Reasons for not visiting the national park.

등으로 여가활동 여력 없음” 2.2%, “기타” 0.7%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복응답(1+2+3순위) 기준의 결과도 1순위 응답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다른 형태의 여가활동 우선”(27.3%)의 순위가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상승하였다(Figure 5).

국립공원에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을 성별과 연령별로 비교하였을 때는 “바깥거나 여가시간 부족”의 응답은 1순위 기준으로 30대 남성이었고 중복응답 기준으로는 30~50대 남성과 50대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0대 여성은 “바깥거나 여가시간 부족”의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그냥/특별한 이유 없음”과 “임신·출산·양육·가족 돌봄 등으로 여가활동 여력 없음”의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0대 남성과 여성은 공통적으로 “건강·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움”을 다른 연령대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Table 4).

2) 국립공원 관리 인식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정상부 및 고지대 탐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정상부 및 고지대 적

정 탐방 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 정상부 및 고지대 탐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탐방 금지)” 6.9%, “산 정상부 및 고지대 탐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일부 탐방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탐방예약제를 확대하거나 탐방허가제를 도입해서 탐방객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탐방 제한)” 37.6%, “현재와 같이 산 정상부 및 고지대에 탐방객이 자유롭게 탐방하며 일부 탐방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탐방예약제를 유지한다(현행 유지)” 50.3%, “국립공원 내 탐방로 전역을 탐방객이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어야 하며 비개방 탐방로도 개방하여야 한다(탐방 확대)” 5.3%로 응답하였다(Figure 6). 시민의 절반 가량(50.3%)은 현재의 정상부 및 고지대 탐방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다음으로 5명 중 2명 정도(37.6%)가 탐방예약제를 확대하거나 탐방허가제를 도입해서 정상부 및 고지대 탐방을 제한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 외 소수의 시민이 전면적인 탐방 금지(6.9%) 혹은 탐방 개방·확대(5.3%)를 선택하였다. 국립공원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국립공원에 방문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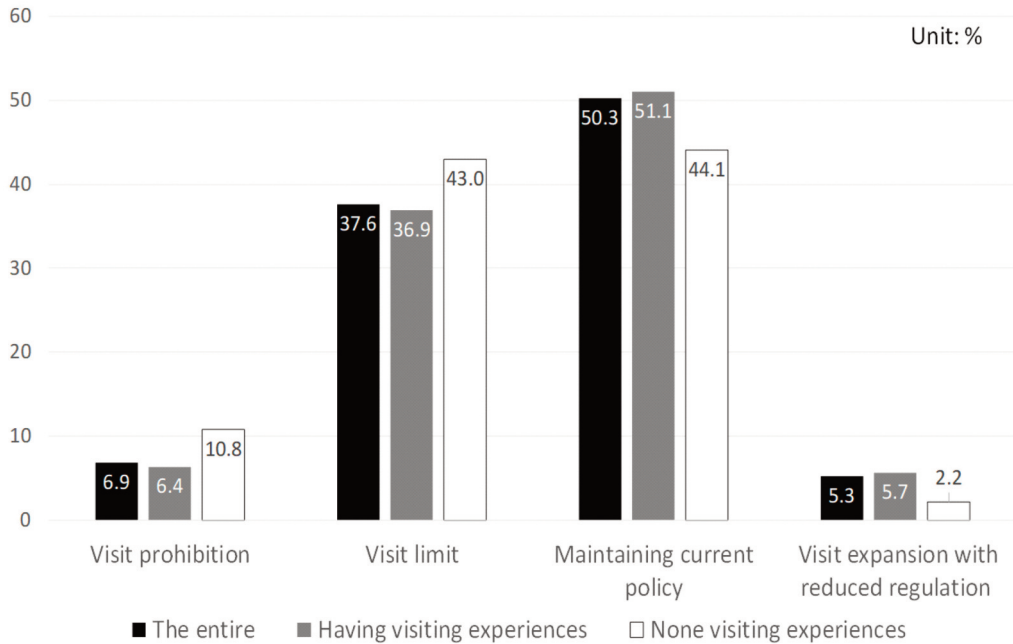


Figure 6. Citizens' awareness of mountaintop and highland exploration management.

를 비교한 결과 국립공원에 방문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탐방금지” 10.8%, “탐방 제한” 43.0%, “현행 유지” 44.1%, “탐방 확대” 2.2%로 전체 및 국립공원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보다 산 정상부 및 고지대 탐방 금지·제한에 대한 항목에 응답률이 높았다 ($p < 0.05$) (Figure 6).

국립공원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탐방안전시설(목재데크, 계단, 안전로프 등), 공원구역 확대, 멸종위기종 복원, 국립공원 이용 제한 수용 의향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Table 5). 첫 번째로 “국립공원 내 목재데크, 계단, 안전로프 등의 탐방시설은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 탐방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53.9%)이 절반 이상으로 “탐방시설은 정상부 및 고지대에 과도한 탐방객을 유도하고 자연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25.9%)보다 높았다. “어느 쪽도 아니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20.3%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립공원 주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하고 점차 우리나라 보호지역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38.8%)이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립공원 주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하거나 점차

우리나라 보호지역 면적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29.1%)보다 높았다. “어느 쪽도 아니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32.1%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반달가슴곰, 산양 등의 멸종위기종 복원이 확대될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46.3%)이 “반달가슴곰, 산양 등의 멸종위기종 복원을 확대하고 사람과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25.5%)보다 높았다. “어느 쪽도 아니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28.3%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공원 이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47.9%)이 “이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양보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견(16.9%)보다 높았다. “어느 쪽도 아니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35.3%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N=707)와 국립공원 방문 경험이 없는 응답자(N=93)(이하 방문자, 비방문자)를 비교해본 결과 탐방안전시설(목재데크, 계단, 안전로프 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반면,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공원구역확대, 반달가슴곰·산양 등의 멸

Table 5. Opinions o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parks (Unit: %)

		Close to A	Nearly close to A	Neutral	Nearly close to B	Close to B
Exploration safety facilities (wood deck, stairs, safety rope, etc.) opinion A. Necessary for the safety, convenience, and protection of trails of visitors B. Induction of high-altitude exploration and destruction of nature are undesirable	The entire	17.0	36.9	20.3	20.0	5.9
	Having visiting experiences	17.0	37.3	20.8	19.2	5.7
	None visiting experiences	17.2	33.3	16.1	25.8	7.5
Opinion on the expansion of the park area** A. We need to expand the area of the protected area B. There is no need to expand the protected area	The entire	8.1	30.6	32.1	24.8	4.4
	Having visiting experiences	6.6	31.1	31.8	25.6	4.8
	None visiting experiences	19.4	26.9	34.4	18.3	1.1
Endangered Species Restoration Comments A. The restoration of endangered species can cause human and property damage B. We need to expand the restoration of endangered species and promote coexistence with people	The entire	14.1	32.1	28.3	21.9	3.6
	Having visiting experiences	13.3	32.7	27.9	22.3	3.8
	None visiting experiences	20.4	28.0	31.2	18.3	2.2
Opinions on the willingness to accept restrictions on the use of national parks A. To preserve the national park, it must be tolerated even if there are restrictions on its use B. We need to expand the restoration of endangered species and promote coexistence with people	The entire	12.3	35.6	35.3	15.4	1.5
	Having visiting experiences	11.3	36.1	35.1	16.0	1.6
	None visiting experiences	19.4	32.3	36.6	10.8	1.1

*: p<0.05, **: p<0.01, ***: p<0.001

중위기종 복원,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립공원 이용 제한 수용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차이가 보였다. 공원구역 확대 의견에 대해서 방문자 37.7%, 비방문자 46.3%가 동의했고, 멸종위기종 복원에 관해서는 비방문자가 방문자보다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립공원 이용 제한 수용 의향에서도 방문자 47.4%, 비방문자 51.7%가 동의해 비방문자가 방문자보다 다소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p=0.07)(Table 5).

2. 고찰

1) 방문실태

국립공원 이용에 관해서 탐방객들과 일반 시민들의 응답을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탐방객과 일반 시민의 국립공원 방문목적 차이였다.

탐방객 대상의 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16)에 의하면, 2016년 기준 등산 활동

에 참여하는 탐방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관 감상과 사진촬영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휴양활동 중복응답 결과 산악형의 경우 “등산”(58.1%), “경관감상”(33.6%), “사진촬영”(30.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도시근교의 경우에도 “등산”(68.4%), “경관감상”(24.8%), “사진촬영”(24.8%) 등의 순으로 둘 다 등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7년 조사도 동일하게 등산 활동에 참여하는 탐방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관감상”과 “저지대 걷기(산책/힐링 등)” 순으로 나타났다(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17). 참여 휴양활동 중복응답 결과 산악형의 경우 “등산”(60.0%), “저지대 걷기(산책/힐링 등)”(31.5%), “경관감상”(30.2%) 등의 순(Figure 7)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도시근교형의 경우에도 “등산”(74.3%), “저지대 걷기(산책/힐링 등)”(24.2%), “경관감상”(18.3%) 등의 순으로 둘 다 등산의 비율이 가장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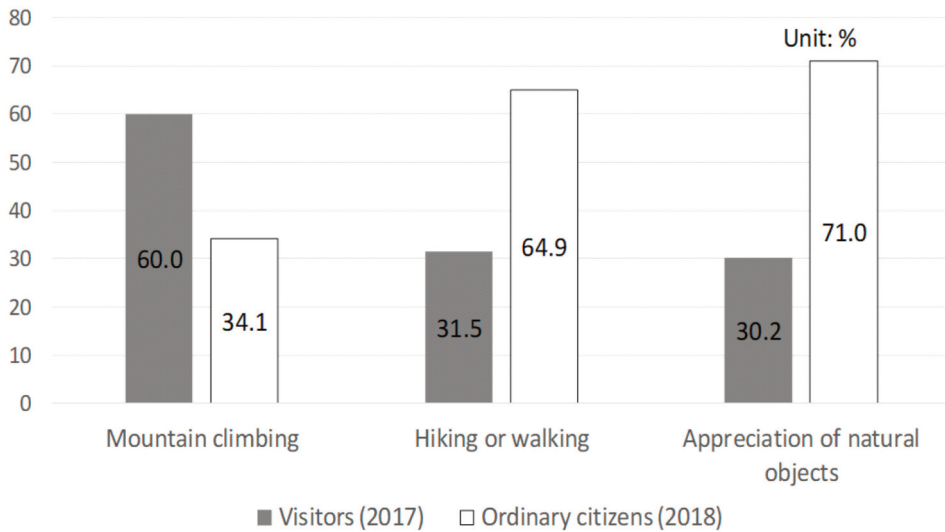


Figure 7. Difference in purpose of visit between visitor survey (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16) and public survey (this study) based on duplicate responses.

았다.

본 연구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방문 목적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순위 기준 “국립공원 내 자연물 감상”, “가벼운 등산(산책)”, “산 정상 등반”, “사찰 및 문화재 감상”, “함께 온 사람들과 친목 활동”, “케이블카·유람선 이용”, “자연/문화 해설 프로그램 참여”, “해수욕”, “캠핑” 순의 비율로 나타났다(Figure 3). 중복응답(1+2+3)의 결과도 1순위 응답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공원 내 자연물 감상”(71.0%), “가벼운 등산(산책)”(64.9%), “사찰 및 문화재 감상”(52.9%), “산 정상 등반”(34.1%)의 순(Figure 7)으로 “산 정상 등반”과 “사찰 및 문화재 감상”이 역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기준에 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산 정상 등반”이 1위였으나 일반 시민들의 경우 “산 정상 등반”이 3위~4위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다. 탐방객과 일반시민은 국립공원을 방문에 대한 목적의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탐방객 조사의 경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현장에서 설문이 이루어지는 반면, 일반 시민의 경우 그동안의 방문 경험과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응답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탐방객과 일반시민은 국립공원의 탐방목적에 바라보는 관점에 시간적 범위의 차이가 있다.

탐방객이 현재 단기의 탐방목적에 집중하여 설문조사에 답했다고 한다면, 일반시민은 국립공원을 방문한 자신의 장기간의 방문목적의 평균적 경향을 고려하여 답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탐방객의 답변이 설문조사 시기의 단기간 특정(국립공원을 자주 찾는 등) 국민의 탐방경향을 반영한다면 일반시민의 답변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장기간 평균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단, 국립공원 방문 목적에 대한 보기 항목이 본 연구와 <국립공원 여가·휴양실태조사>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 다소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의 응답 항목과 이는 국립공원을 주로 찾는 탐방객들에게 정상부 등반이 중요한 요소라면 조사범위를 일반 시민으로 확대할 경우 자연물 감상과 저지대 탐방의 중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원관리 정책은 탐방객(국립공원을 자주 찾는 특정 국민의 경향)과 일반 시민(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경향)의 차별화된 수요를 이해하고 이 둘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이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탐방인식

탐방인식은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경험이 없는 응답자, 탐방객과 일반 시민으로 나

누어 조사되었다.

일반 시민 중 국립공원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국립공원에 방문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이하 방문자, 비방문자)를 비교한 결과 비방문자가 방문자보다 산정부 및 고지대 탐방 인식에서 “탐방 금지”와 “탐방 제한”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국립공원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서는 비방문자가 방문자보다 보호지역 확대에 동의하고 국립공원 이용 제한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멸종위기종 복원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우려하며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 비방문자가 방문자보다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더 높으나 멸종위기종 복원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탐방에 대한 탐방객과 일반 시민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탐방객이 일반시민보다 더 탐방예약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탐방객의 탐방예약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은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Lee et al., 2015). 탐방객 응답자의 2/3는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탐방예약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66.9%의 응답자가 탐방예약제를 확대·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시민의 경우, 현재와 같이 산 정상부 및 고지대에 탐방객이 자유롭게 탐방하고, 일부 탐방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탐방예약제를 유지한다가 50.3%로 나왔으며 산 정상부 고지대 탐방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일부 탐방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탐방예약제를 확대하거나 탐방허가제를 도입해서 탐방객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가 37.6%로 나타났다(Figure 6). 일반 시민의 절반가량은 현재의 정상부 및 고지대 탐방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다음으로 5명 중 2명 정도가 탐방예약제를 확대하거나 탐방허가제를 도입해서 정상부 및 고지대 탐방을 제한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탐방예약제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비율은 16.2%에 불과하였으며 최근 1년 이내에 탐방예약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3%에 불과하였다.

반면, 선행 연구에 따르면 탐방예약제에 대한 탐방

객들의 인지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립공원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탐방예약제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75.9%의 응답자가 탐방예약제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하였다(Yoon 2016). 또한, 본 탐방로가 탐방예약제 구간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한 탐방객은 17.6%였고 모르고 있었던 탐방객은 82.4%로 나타났으며, 탐방예약제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6%로 약 2/3을 차지하였다. 일반 시민의 경우도 탐방예약제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비율은 16.2%에 불과하였으며 최근 1년 이내에 탐방예약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3%에 불과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탐방객들은 탐방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탐방객들의 탐방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Yoon 2016).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탐방예약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탐방예약제를 이용해본 탐방객과 일반 시민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상부 및 고지대 탐방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탐방제한 정책을 소폭으로 도입하라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통해 공원특별보전지구를 신설하고 정상부 및 고지대 탐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연구 결과 탐방객을 포함한 시민들이 탐방 금지 정책을 단기간에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탐방예약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의 탐방예약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우선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탐방예약제 시행의 시스템을 완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 탐방예약제가 탐방객에게 지속가능한 탐방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려 국민의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 할 것이다(Yoon 2016).

특히, <국립공원 미래비전 3050> 및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서는 탐방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산정부나 고지대 탐방을 축소

하려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일반 시민 대상 조사에서도 많은 응답자들이 산정부나 고지대 탐방보다는 공원 내 자연물 감상이나 저지대 산책과 같은 산록부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 이는 산정부와 고지대 탐방에만 치우쳐 정책을 시행하였을 경우 미래에 일반 시민들의 수요를 예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위하여 다양한 저지대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 런던의 “국립공원도시(National Park City)”의 경우, 도시 생태계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통해 충분한 녹지, 깨끗한 대기, 레크레이션 공간 등 런던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생태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London National Park City 2019). 따라서 국립공원은 산정부 등산과 고지대 탐방을 원하는 탐방객과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저지대 탐방을 원하는 일반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들을 새로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IV. 결론

현재까지 국립공원 정책은 기존에 국립공원을 찾고 있는 탐방객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국립공원 의식은 탐방객들의 의식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시민들이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원 정책에 일반 시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정상부와 고지대 생태계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추진 중인 정상부 및 고지대 탐방 금지 정책은 탐방객을 포함한 시민들이 단기간에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국립공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탐방예약제에 대한 일부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국립공원의 생태계 훼손을 막고 지속가능한 탐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 중심적으로 탐방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탐방객과 일반 시민 양쪽 다 탐방예약제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탐방예약제가 시행되

고 있는 탐방로나 이용 가능 시기 등을 모르거나, 아직 이를 이용해본 경험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공원에 최초로 탐방예약제를 도입한지 11년이 경과한 사항으로 탐방예약제 도입이 일시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정착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국립공원의 탐방예약제 제도가 보다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탐방예약제에 대한 인지를 높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로 국립공원 관리 정책에 대한 탐방객들과 일반 시민의 차별화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공원 관리처는 기존에 국립공원을 찾지 않았던 시민들의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저지대 탐방 등 다양한 탐방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하려는 제도들을 탐방객과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고지대 탐방 및 탐방예약제를 시작으로 탐방객과 일반 시민들의 이용과 인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들의 시행 효과를 검토한다면, <국립공원 미래비전 3050>을 견인하고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의 행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사

이 논문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수행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관리지표-이행평가-실효성평가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과제번호: RE 2021-13)] 및 2019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이다.

References

- Ahn SE, Kim H, Kim C, Seo Y, Kwak S, Yoon TK, Kim J, Lee H, Cho Y, Park Y, Ji S, Sin J, Kang W and Shin Y. 2017. Appendix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Environmental Valuation: 2017 Public Survey on Environmental Awareness and

- Attitudes. Korea.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orean Literature]
- 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16. Report on 2016 National Park Leisure and Recreation Survey. [Korean Literature]
- 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17. Report on 2017 National Park Leisure and Recreation Survey. [Korean Literature]
- 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18. A Study on the Value E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 in National Parks. [Korean Literature]
-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6. 2016 National Park Awareness Survey Results Report. [Korean Literature]
-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20. 2020 National Park Basic Statistics. [Korean Literature]
- Lee JH, Lee SH, Sim KW. 2015. A study on the impact of visitor satisfaction of Nogodan area at the Jirisan National Park on behavioral intentions: Focus on appropriateness of national park reservation system as a moderating variabl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19(1): 85-91. [Korean Literature]
- Lee JS, Cho JH, Kim YG. 2003. A survey on the visitors's cognition of visitor reservation system in National park: The case study of Soraksan National park. *Journal of the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17(1): 92-100. [Korean Literature]
- Lee SW. 2010.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Awareness and Behavior of National Park Tourists: With the Emphasis On Chiaksan National Park. Published masteral dissertation. Sangj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Korean Literature]
- London National Park City. 2019. National Park City Foundation; [accessed 2021 March 2]. <https://www.nationalparkcity.london/>
- Ministry of Environment. 2017a. Activity Document of Future Forum for National Park 50th Anniversary. [Korean Literature]
- Ministry of Environment. 2017b. National Park Future Vision 3050.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n Literature]
- R Core Team. 2020.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URL <http://www.R-project.org/>.
- Seo BW, Kim DY, Jeoun BG and Lee JH. 2016.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national park visiting programs by season and visitors' perception in the winter: Case of Deogyusan National Park. *Journal of the Korea Instiute of Forest Recreation* 20(3): 49-60. [Korean Literature]
- Yang SJ, Kang HM, Lee CH. 2014.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visitors for the national park facilities: Focusing on Mudeungsan National Park.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18(3): 33-44. [Korean Literature]
- Yoo KJ, Kwon TH. 2004. Visitors' perceptions on trail use in Korean national parks: case studies in Bukhansan and Chiaksan National Park.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18(4): 437-445. [Korean Literature]
- Yoon DY. 2016.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Visitor-Reservation System in National Park through Investigating Visitors. Published maste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Korean Literature]